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 보건사회복지



- 94**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요
- 96**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10년 이후 장애인 점감 추세
- 9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심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해요
- 100**    **의료시설**  
건강한 삶! 의료시설 꾸준히 증가
- 102**    **의료인력**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억제, 역내 산업 육성 시급
- 104**    **국민연금**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70**개

**9,654**명 수용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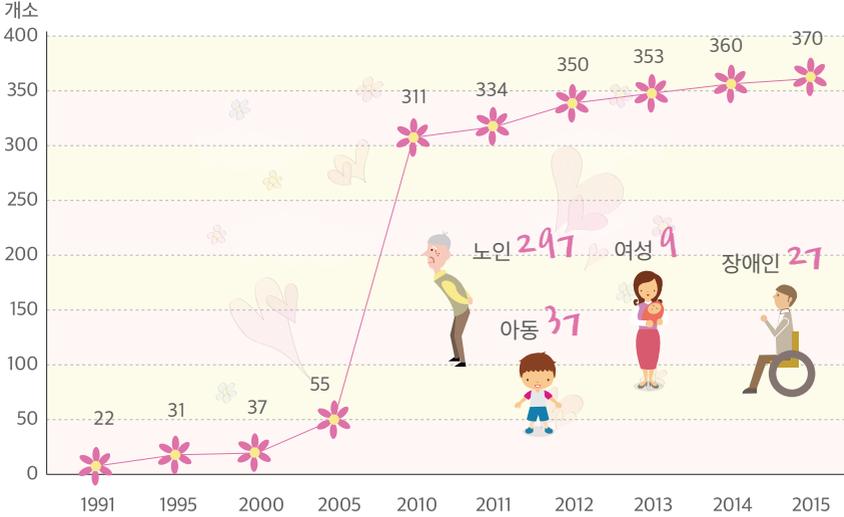
충북의 사회복지시설은 370개에 9,654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 10.0%, 노인복지시설 80.3%, 장애인복지시설 7.3%, 여성복지시설 2.4%, 기타 시설 1.1%이며, 수용인원별로는 아동복지시설 7.9%, 노인복지시설 73.4%, 장애인복지시설 16.9%, 여성복지시설 1.8%, 기타 시설 7.7%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가 국가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1991년에 비해 시설수가 1,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362.5%), 노인복지(4,850.0%), 장애인복지(237.5%), 기타 시설(3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급증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조사 초기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복지 시설 9개소가 신설된 것도 여성복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집단시설(고아원) 대신 가정위탁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세가 반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 시설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행복으로 가는 길**  
 모든 모두가 행복하게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해요.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1991	22	1,976	8	538	6	606	8	832	-	-
1995	31	2,592	8	487	8	587	13	1,379	2	139
2000	37	3,090	8	595	10	788	15	1,578	4	129
2005	55	3,861	12	792	20	1,276	17	1,615	6	178
2010	311	7,455	37	891	245	4,776	23	1,685	6	103
2011	334	8,479	40	908	263	5,807	23	1,627	8	137
2012	350	8,695	39	947	279	5,924	24	1,663	8	161
2013	353	9,010	39	800	280	6,193	26	1,887	8	130
2014	360	9,319	36	756	290	6,687	26	1,696	8	180
<b>2015</b>	<b>370</b>	<b>9,654</b>	<b>37</b>	<b>763</b>	<b>297</b>	<b>7,084</b>	<b>27</b>	<b>1,633</b>	<b>9</b>	<b>174</b>

자료 : 여성정책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충북통계연보

\*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만 포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미포함

#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공극적인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2015년 총북 장애인

**93,532명,**

그 중 여성 **42.5%**

## 2010년 이후 장애인 점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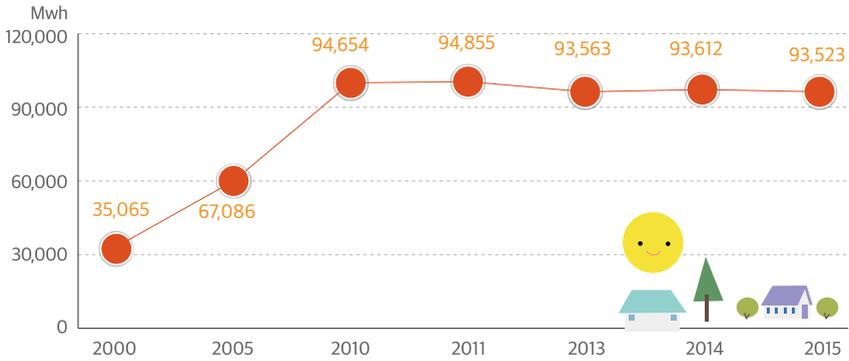
2015년 현재 총북의 장애인은 93,532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여성이 42.5%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수는 2010년 이후 점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11.1%), 지적장애(10.1%), 시각장애(9.6%), 뇌병변(9.2%), 정신장애(4.0%), 신장장애(2.5%), 기타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1.7%), 자폐(0.6%), 심장(0.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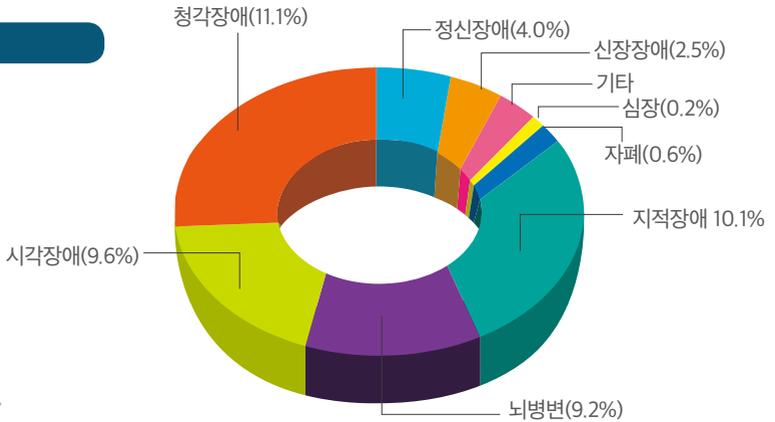
장애인은 2000년 대비 1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자폐성(1,462.2%), 뇌병변(714.3%), 정신(436.5%)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 증가는 선천적인 요인 보다는 고령화, 교통사고 등에 따른 후천적인 요인의 증가가 큰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기피하던 장애인 등록을 통한 각종 혜택 수혜를 위한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장애에 대한 후속적 조치보다는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 등록 현황



용도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2000	35,065	21,404	1,062	3,103	3,517	4,449	37	693	671	129	-
2005	67,086	35,562	6,008	6,598	6,911	6,450	274	2,412	1,209	342	1,320
2010	94,654	49,440	9,327	8,920	10,773	8,195	431	3,667	1,727	393	1,781
2011	94,855	49,416	9,231	8,966	10,842	8,475	450	3,603	1,863	287	1,722
2012	94,137	48,897	8,995	8,957	10,726	8,698	484	3,520	1,972	227	1,661
2013	93,563	48,436	8,713	8,934	10,555	8,973	512	3,566	2,048	207	1,619
2014	93,612	48,188	8,621	8,952	10,491	9,209	537	3,660	2,190	187	1,577
<b>2015</b>	<b>93,523</b>	<b>47,715</b>	<b>8,648</b>	<b>8,982</b>	<b>10,369</b>	<b>9,426</b>	<b>578</b>	<b>3,718</b>	<b>2,333</b>	<b>168</b>	<b>1,586</b>

자료: 노인장애인과

\* 기타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포함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976년 대비

2015년

**34.6%** 증가  
**55,359**명

## 세심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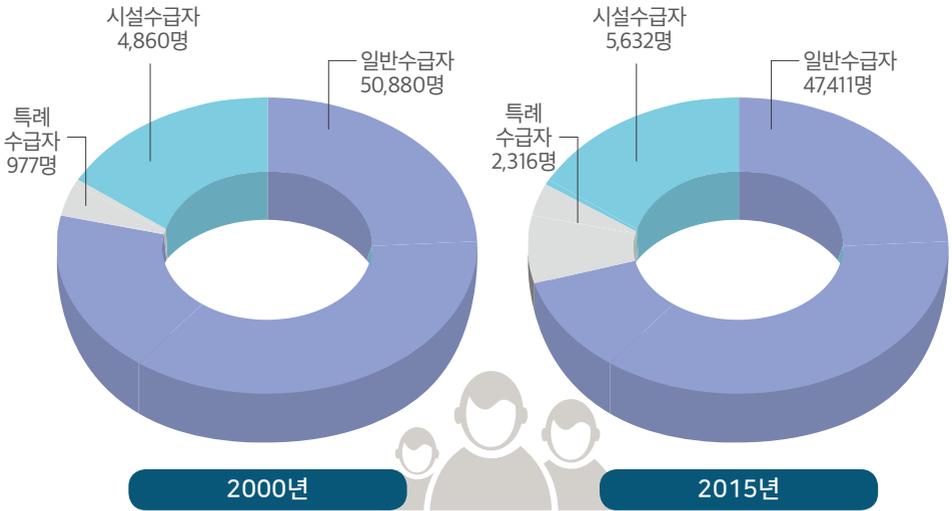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0년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명명)는 1976년보다 2015년 현재 34.6%가 증가한 55,3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85.6%), 시설수급자(10.2%), 특례수급자(4.2%) 순이며 남녀 성비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6년 41,126명에서 1990년 106,3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성장세가 꺾여 연차별로 차이는 있으나 4~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라 증감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가구당 생계·주거급여가 월 평균 11만원씩 늘어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맞춤형급여' 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 초과 시 모든 혜택을 중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1990	106,323	101,344	4,979	-
1995	53,101	47,767	5,334	-
2000	56,717	50,880	4,860	977
2005	57,910	51,646	5,099	1,165
2010	57,408	50,742	5,591	1,075
2011	53,370	46,584	5,461	1,325
2012	49,669	42,638	5,761	1,270
2013	46,372	39,115	5,704	1,553
2014	44,964	36,950	5,625	2,389
<b>2015</b>	<b>55,359</b>	<b>47,411</b>	<b>5,632</b>	<b>2,316</b>

자료 : 복지정책과(2000년 이전 생활보호대상자,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시행)

# 의료시설

1960년  
**305**개

2015년  
**1,67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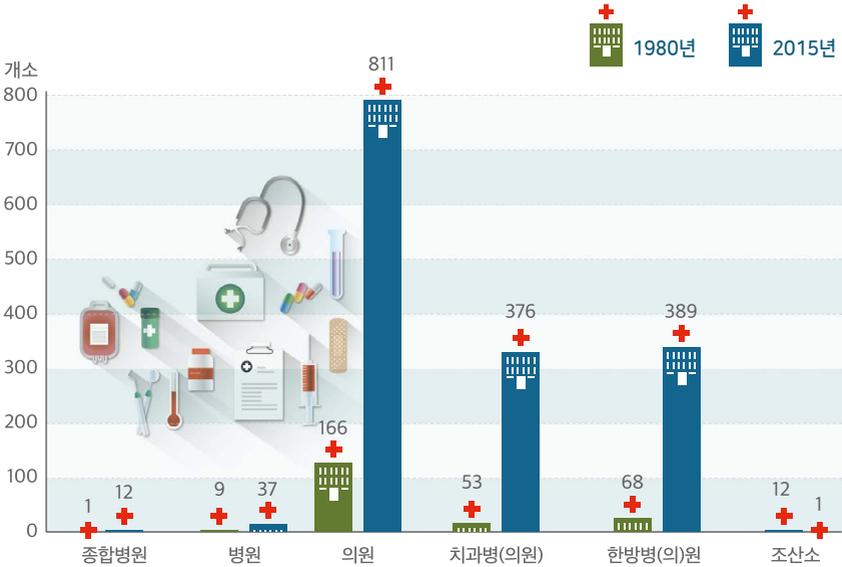


## 건강한 삶! 의료시설 꾸준히 증가

도내 의료시설은 1,679개로 1960년 305개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일반의원(811, 48.3%), 한방병(의)원(389, 23.2%), 치과(376, 22.4%), 병원(37, 2.2%), 종합병원(12, 0.7%), 부속의원(10, 0.6%), 특수병원(6, 0.4%), 조산소(1, 0.1%)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료시설은 인구 증가와 함께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상승하고 서울 등 종합병원으로의 선택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방문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적 제고를 병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가장 밀접하게 책임지고 있는 의료시설!  
우리 지역엔 몇개의 의료시설이 있을까요?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60	305	-	3	136	25	102	39
1965	334	-	4	164	26	117	23
1970	266	-	4	133	23	94	12
1980	292	1	9	166	33	61	12
1985	345	5	9	186	53	68	15
1990	500	8	9	277	98	91	8
1995	749	10	14	393	165	154	5
2000	1086	10	14	608	233	209	5
2005	1,309	12	24	736	247	269	3
2010	1,485	10	35	768	309	325	1
2013	1,584	11	37	772	346	366	1
2014	1,630	11	37	788	367	374	1
<b>2015</b>	<b>1,679</b>	<b>12</b>	<b>37</b>	<b>811</b>	<b>376</b>	<b>389</b>	<b>1</b>

자료 : 보건정책과, 충북통계연보

## 의료인력

의사 **2,175**명  
한 의사 **458**명  
치과의사 **510**명  
약사 **150**명

1960년 대비  
의료인력 **1,200**명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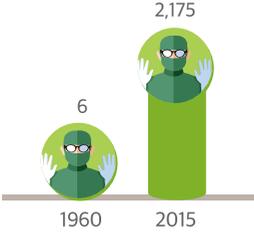
##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억제, 역내 산업 육성 시급

도내 의료인력수는 1960년 23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14,947명으로 무려 6,280.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로는 간호조무사(5,379, 36.0%), 간호사(3,474, 23.2%), 의료기사(2,693, 18.0%), 의사(2,175, 14.6%), 치과의사(510, 3.4%), 한 의사(458, 3.1%), 약사(150, 1.0%), 의무기록사(108, 0.7%), 조산사(6, 0.04%)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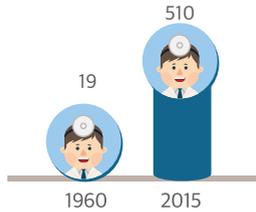
의료인력 수는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고급 전문인력인 의사, 한 의사, 약사의 비중이 작고 증가세도 크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의사(충북대, 건국대), 약사(충북대), 한 의사(세명대) 등이 배출되고 있으나, 역외유출이 큰 실정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역내 배출 인력의 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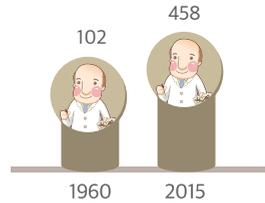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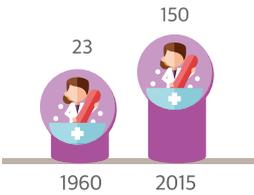
치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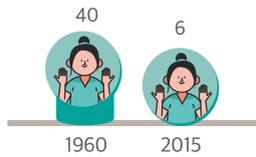
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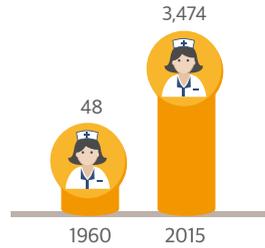
약사



조산사



간호사



단위 :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1960	238	6	19	102	23	40	48
1965	704	148	24	97	204	81	150
1970	1,006	240	37	62	311	21	335
1980	2,934	510	109	100	39	22	692
1985	4,832	994	181	168	64	10	973
1990	7,042	1,372	264	234	62	6	1,544
1995	8,310	1,496	291	313	62	6	1,924
2000	11,167	1,773	374	402	91	8	2,679
2005	12,217	1,902	423	428	97	8	2,868
2010	11,834	1,966	398	426	128	8	2,762
2013	12,885	2,055	448	445	192	5	2,991
2014	14,445	2,097	489	463	205	9	3,238
<b>2015</b>	<b>14,947</b>	<b>2,175</b>	<b>510</b>	<b>458</b>	<b>150</b>	<b>6</b>	<b>3,474</b>

자료 : 보건정책과, 충북통계연보

# 국민연금

가입자 수

**640,999**명

1990년 대비

**709.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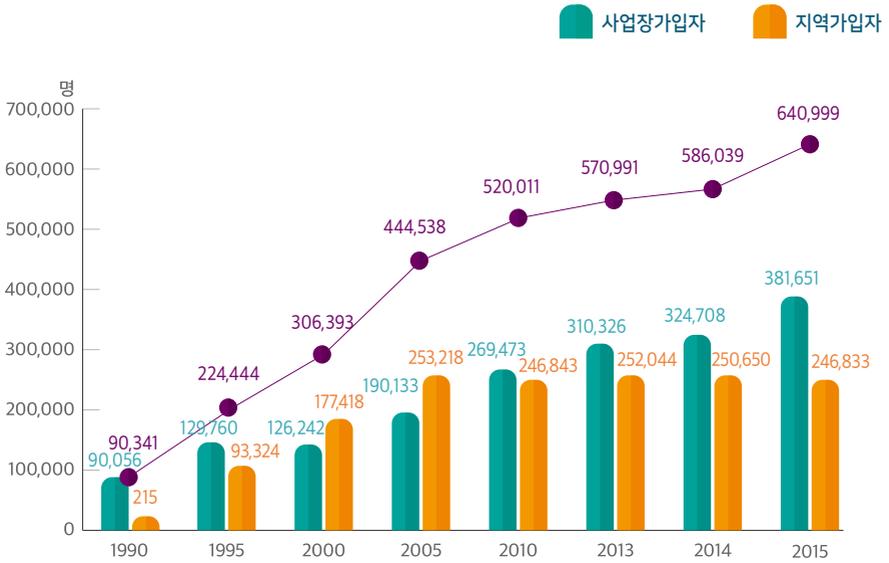


##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도내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640,999명으로 지난 1990년 대비 709.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 사업자 수는 43,589개소이며, 사업장 가입인원은 381,65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246,833명(38.5%), 임의가입자는 12,515명(2.0%) 등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에 비해 사업장은 2,701% 사업장 가입자는 3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수는 1990년 215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 가입자 수가 246,833명으로 무려 114,7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령자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의 가입자 확대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더욱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 최고의 복지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증대하고** 있어요

단위 : 명, 개소

구분	총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수	사업장 가입자			
1990	90,341	1,556	90,056	215	-	70
1995	224,444	3,865	129,760	93,324	1,046	314
2000	306,393	5,648	126,242	177,418	588	2,145
2005	444,538	16,786	190,133	253,218	614	573
2010	520,011	28,819	269,473	246,843	2,234	1,461
2013	570,991	35,734	310,326	252,044	4,392	4,229
2014	586,039	39,452	324,708	250,650	4,743	5,938
<b>2015</b>	<b>640,999</b>	<b>43,589</b>	<b>381,651</b>	<b>246,833</b>	<b>5,154</b>	<b>7,361</b>

자료 : 국민연금공단